임산부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 비교

장경애¹ · 김광옥² · 이선옥³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¹, 동주대학교 간호학과², 신라대학교 간호학과³

= Abstract =

Comparing Oral Health Care Awareness and Practice in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Kyeong Ae Jang¹ · Kwang Ok Kim² · Sun Ok Lee³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¹

Department of Nursing, Dongju College²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³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practice of oral health care in pregnant women with and without oral health care education experience.

Methods: Participants in the survey for this study were 221 pregnant women in female exclusive hospitals located in B city and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14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number of pregnant women experienced in oral health education was 36.2%. The oral health care awareness of pregnant women experienced i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score was 15.14 ± 1.96 , and inexperienced pregnant women total score was 14.14 ± 2.63 ($t=3.26$, $p=.001$). The oral health care practice of pregnant women experienced i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score was 12.90 ± 2.48 , and inexperienced pregnant women total score was 10.95 ± 4.06 ($t=3.89$, $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oral health care was positively correlated.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outcom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for oral health education in the antenatal care program when the pregnant women visiting the hospital for medical check-up.

Key Words: pregnant women,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wareness, practices

서 론

교신저자: 이선옥,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괘법동)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51-999-5870, 팩스번호: 051-999-6241

E-mail: solee@silla.ac.kr

원고접수: 2016년 2월 17일, 원고심사: 2016년 4월 7일

원고채택: 2016년 4월 27일

Copyright © 2016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은 생애주기 중에 구강건강 악화요인이 가장 많
이 나타날 수 있는 임신기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신 중에는 황체호르몬이 증가하

여 치은을 구성하는 결체조직의 기저물질과 친화력을 가지며, 치은에 분포된 모세혈관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치은의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Prichard, 1972). 임신부의 구강 특성으로 치주조직이 세균과 염증,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어 혈관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Moreu et al., 2005; Bassani et al., 2007), 임신하였을 경우 치주염에 이환될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주질환은 조산을 일으키는 유발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Xie et al., 2013).

구강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비가역적이고, 만성 질병으로 갈 수 있으므로 예방이 중요하고, 질환에 이환된 치아는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야 하며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구강질환은 발생빈도가 높고 범발성 질환이므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태도를 변화하여 구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구강관리 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Cho & Hwang, 2010).

구강보건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적달성 과정이므로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구강건강상담 및 구강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Park et al., 2006). 선행연구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치과진료 후 잇솔질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하거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후 구강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구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보다 일정기간 안에 재검진을 받으려 간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Shin & Kwon, 2010). 또한 치과 내원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의 경험은 구강증상의 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Woo & Shim, 2014).

임산부의 주된 구강보건교육내용으로 치면세균막 관리, 당분섭취 제한, 가벼운 치면세마 및 불소의 이용 등에 중점을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 동안의 구강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Park & Shim, 2008). 또한

임산부의 구강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구강건강이 중요하고(Park & Kim, 2009), 구강건강행위는 생애 동안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roadbent & Thomson, 2006). 따라서 임산부는 치과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전신 건강과 영유아에게 건강한 구강관리를 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Lee & Choi, 2011; Park et al., 2006; Kim & Lee, 2007)는 있으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구강건강관리 인지와 실천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근로자들의 구강보건교육 무경험자는 구강보건지식정도, 인식정도, 관심정도, 중요정도가 유경험자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Kim & Woo, 2012). 따라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임산부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관심을 갖게 하여 영·유아까지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임산부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의 인지도 및 실천도를 비교 조사하여 임산부의 산전진찰 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비교한다.
- 3)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의 인지도와 실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부산과 경남 소재 5개 여성전문병원에서 채태기간 37주 이상인 정상 임신부 221명을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집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Cohen, 1988)을 이용하여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0.3에서 산출된 최소 대상자수는 161명이었다.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보일 사례 수 9부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2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정도,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으로 구성하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산과적 특성

본 연구의 산과적 특성은 임신 중 구강보건교육 받은 시기, 출산력,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 임신 중 치과 치료 유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란 임신 중 구강관리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며(Choi, 2005), 본 연구에서는 보건

복지부(2002)의 임신기 구강관리지침서와 Choi (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임산부의 구강 관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식이조절 11문항, 올바른 칫솔질 7문항, 보조구강위생용품 10문항, 불소도포 및 정기구강검진 5문항 등 4개 영역 총 33문항을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이다. 인지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4)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실천도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실천도란 임신 중 구강관리에 대한 예방대칙과 관리를 실제로 실천하는 정도를 말하며(Choi, 2005),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2002)의 임신기 구강관리지침서와 Choi (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임산부의 구강관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식이조절 11문항, 올바른 칫솔질 7문항, 보조구강위생용품 10문항, 불소도포 및 정기구강검진 5문항 등 4개 영역 총 33문항을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여 점수화 한 것이다. 실천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 까지 부산과 경남 소재 5개 여성전문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허락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외래에 방문한 임신 37주 이상인 정상 임신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와 철회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는 연구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에게 치약과 칫솔 세트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ANOVA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관리의 인지도와 실천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p=.013)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chi^2=0.01$, p=.929), 학력($\chi^2=2.27$, p=.518), 가족의 월평균수입($\chi^2=0.51$, p=.459)은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산과적 특성 비교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교육 받은 임신주수($\chi^2=0.28$, p=.866), 출산력($\chi^2=0.09$, p=.754), 임신 중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chi^2=1.44$, p=.230), 임신 중 치과치료 경험($\chi^2=0.46$, p=.497)은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 따른 구강 건강관리 인지도의 차이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의 차이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15.14 ± 1.96 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14.14 ± 2.63 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6, p=.001).

총 4개 하부영역 중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식이조절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3.83 ± 0.62 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성 적

1.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대상자 중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전체 221명 중 80명(36.2%)이었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임신부는 141명(63.8%)이었다.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의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직업 유무($\chi^2=6.1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regnant Women by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N=22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χ^2	p
		Yes (n=80)	No (n=141)		
		f (%)	f (%)		
Age (yr)	<25	6 (7.5)	18 (12.8)	0.01	.929
	26~30	26 (32.5)	38 (27.0)		
	31~35	31 (38.8)	50 (35.5)		
	>36	17 (21.3)	35 (24.8)		
Education	≤High school	26 (32.5)	45 (31.9)	2.27	.518
	≥College	54 (67.5)	96 (68.1)		
Occupation	Yes	53 (66.3)	69 (48.9)	6.18	.013
	No	27 (33.8)	72 (51.5)		
Monthly income (10,000 won)	<400	55 (68.8)	90 (63.8)	0.54	.459
	≥400	25 (31.3)	51 (36.2)		

3.59±0.78점이었다($t=2.35$, $p=.019$). 올바른 칫솔질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4.13±0.56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83±0.85점이었다($t=2.83$, $p=.005$).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3.83±0.81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09±0.88점이었다($t=0.82$, $p=.017$).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3.80±0.79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52±0.80점이었다($t=0.53$, $p=.015$) (Table 3).

4.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실천도의 차이

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실천도의 차이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12.90±2.48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10.95±4.06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9$, $p<.001$).

총 4개 하부영역 중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식이조절 실천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3.13±0.74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90±1.12점이었다($t=2.92$, $p=.004$). 올바른 칫솔질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3.76±0.83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12±1.28점이었다($t=3.98$, $p<.001$).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2.81±1.13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25±1.02점이었다($t=3.72$, $p<.001$).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 3.03±0.84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2.68±1.13점이었다($t=2.40$, $p=.017$) (Table 4).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Pregnant Women by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N=22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χ^2	p
		Yes (n=80)	No (n=141)		
		f (%)	f (%)		
Time of oral health education in gestation (month)	<3	22 (27.5)	42 (29.8)	0.28	.866
	4~5	21 (26.2)	39 (27.7)		
	6~10	37 (46.3)	60 (42.6)		
Parity	Primi	34 (42.5)	63 (44.7)	0.09	.754
	Milti	46 (57.5)	78 (55.3)		
Need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56 (70.0)	109 (77.3)	1.44	.230
	No	24 (30.0)	32 (22.7)		
Dental care of during pregnancy	Yes	19 (23.8)	28 (19.9)	0.46	.497
	No	61 (76.3)	113 (80.1)		

Table 3. Differences in Participant' Score of Awareness Oral Health Care

Variable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	p	Range
	Yes (n=80)	No (n=141)			
	Point M±SD	Point M±SD			
Diet control	3.83±0.62	3.59±0.78	2.35	.019	1.64~5.00
Correct tooth brushing	4.13±0.56	3.83±0.85	2.83	.005	2.60~5.00
Use of oral care products	3.38±0.81	3.09±0.88	0.82	.017	1.40~5.00
Regular dental check up and spread of fluoride	3.80±0.79	3.52±0.80	0.53	.015	2.00~5.00
Total	15.14±1.96	14.14±2.63	3.26	.001	11.00~19.82

5.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구강건강관리 인지도가 높으면 실천도가 높았다.

인지도의 식이조절과 실천도의 식이조절($r=.337$, $p<.001$), 인지도의 올바른 칫솔질과 실천도의 올바른 칫솔질($r=.442$, $p<.001$), 인지도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실천도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r=.375$, $p<.001$), 인지도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와 실천도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r=.535$, $p<.001$) 간에 중정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지도의 식이조절과 실천도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r=.149$, $p<.05$) 인지도의 구강보조위생용품사용과 실천도의 식이조절($r=.139$, $p<.05$), 올바른 칫솔질($r=.148$, $p<.05$) 간에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5).

고 찰

임산부의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임산부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태도와 행위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임신 중 구강건강관리의 인지도와 실천도 및 하부 영역에서 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36.2%였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임산부는 63.8%이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이 있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Lee와 Choi (2011)의 92.8%, Park과 Shim (2008)의 94.8% 보다 높았고, 직업이 있는 여성이 구강보건교육

Table 4. Differences in Participant' Score of Practice Oral Health Care

Variable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	p	Range
	Yes (n=80)	No (n=141)			
	Point M±SD	Point M±SD			
Diet control	3.13±0.74	2.90±1.12	2.92	.004	2.00~5.00
Correct tooth brushing	3.76±0.83	3.12±1.28	3.98	<.001	1.57~5.00
Use of oral care products	2.81±1.13	2.25±1.02	3.72	<.001	1.00~5.00
Regular dental check up and spread of fluoride	3.03±0.84	2.68±1.13	2.40	.017	4.00~5.00
Total	12.90±2.48	10.95±4.06	3.89	<.001	8.10~18.26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Practice of Oral Health Care

Practice \ Awareness	Diet control	Correct tooth brushing	Use of oral care products	Regular dental check up and spread of fluoride
Diet control	.337**	.338**	.139*	.328**
Correct tooth brushing	.264**	.442**	.148*	.396**
Use of oral care products	.149*	.210**	.375**	.303**
Regular dental check up and spread of fluoride	.230**	.312**	.277**	.535**

* $p<.05$, ** $p<.001$.

을 받을 기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임신부의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의 응답이 전체 대상자의 74.7%를 보여 Sung과 Ha (2012)의 72.3%와 비슷하였고, Lee와 Choi (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92.8%로 나타나 임신부가 실제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경임부보다 초임부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직업이 없는 초임부들을 대상으로 산전 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구강관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인지도는 15.14점, 실천도는 12.90점이었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인지도는 14.14점, 실천도는 10.9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실천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hoi (2005)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구강위생에 대한 인지도가 실천도보다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지만, Sung과 Ha (2012)의 연구에서는 인지도보다는 실천도가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관리나 구강보건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복연구를 통해 본 결과를 재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의 인지도와 실천도의 하부영역 중 식이조절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가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고, 인지도보다 실천도가 낮았으며 이는 Sung과 Ha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에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 영양소의 섭취를 증가하고, 임산부에게 유해한 음식을 삼가고 싶지만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이나 구토로 인한 제한된 식이섭취와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Women's Health Nursing, 2015)

인지도에 비해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산부의 식이조절 실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조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임신 중 올바른 잇솔질의 인지도와 실천도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가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임산부의 경우 구강보전에 대한 인지도와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Lee와 Kang (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등(2006)에 의하면 정기적인 치과방문과 예방적 시술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임산부들이 임신시의 치은출혈로 잇솔질을 기피하게 되어 치은염을 악화시키고 치아우식증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에 대해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임신 기간동안 수주 또는 매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임신 중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 실천도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가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하부 영역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Lee와 Kang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Cho와 Hwang (2010)의 연구에서도 임산부들이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집단이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방법과 실천을 강조하여 구강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Lee와 Choi (2011)의 연구에서 보조구강위생용품 종류별 사용으로 이쑤시개, 치실, 구강양치액, 혀클리너, 치간칫솔 순으로 나타났고 치간사이와 잇몸에 위해가 적은 치간칫솔이나 치실과 같은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치과를 내원하였을 때 진료 후 보조구강위생용품에 관련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임신 중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에 관한 인지도와 실천도에서 구강

보건교육경험을 한 경우가 구강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o와 Hwang (2010)의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한 응답이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임신부는 임신 초기보다 중·말기로 갈수록 잔사지수, 치석지수, 간이구강위생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치과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정기적인 내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Kim et al, 2006). 하지만 임신부들의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임신부들이 산전 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을 때 구강보건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스스로 동기유발이 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부들이 치과에 내원하여 불소도포를 하지 않더라도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소도포를 대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불소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구강보건관리 인지도와 실천도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구강보건관리에 관한 인지가 높으면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인지도에 대한 불소도포 실천도 간에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r=0.535$, $p<0.001$),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인지도에 대한 식이조절 실천도 간에 가장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139$, $p<0.05$). Hong과 Jeong (2009)의 연구에서 구강보건 인식은 정기적 구강검진 실천과 올바른 잇솔질, 올바른 세치제 선택, 구강보건교육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Jung과 Cheon (2009)의 연구에서도 건강행위의 실천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행위를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정기적인 내원 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임신부들이 구강보건지식에서 태도와 행동을 변화하여 올바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개별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기치료 및 예방처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산과 경남지역 5개 여성전문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이므로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임신부들이 구강건강관리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에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유무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비교하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5개 여성전문병원의 임신부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36.2%였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63.8%로 과반수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구강건강관리 인지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15.14점으로 중상정도이었고, 경험이 없는 임신부는 14.14점으로 약간 낮았다. 구강건강관리 실천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12.90점으로 중상정도이었고, 경험이 없는 임신부는 10.95점으로 약간 낮았다. 이는 임신부들이 구강건강관리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천을 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의 하부영역에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임신부나 교육경험이 없는 임신부 모두에서 식이조절이 가장 높았고,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영역이 가장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구강건강관리 인지도와 실천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산전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한 구강건강관리법과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습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구강교육을 체계화시켜 교육시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ssani DG, Olinto MT, Kreiger N. Periodontal disease and periodontal outcomes: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2007;34(1):31-39
- Broadbent JM, Thomson WM. Re: Diverse components of the oral environment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whether ADHD is a risk factor for dental caries. *JEBD* 2005;5:39-40—review of Broadbent et al (2004). *Journal of Evidence Based Dental Practice* 2006;6(3):250-251
- Cho HS, Hwang SH. Impa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Education* 2010;11(1):7-15
- Choi JM. A study on the level of awareness and practice of the pregnant women about oral health care. Graduate School of Ching-Ang University, 2005
-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1988
- Hong MH, Jeong MA. A study on oral health awareness and oral health care among some dental clinic patients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4B):1895-1906
- Jung SB, Cheon GS. A study on health-related behaviors and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exercis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1B):229-240
- Kim EJ, Woo SH. Relationship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o oral health awareness among shipbuilding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2;12(7):240-246
- Kim JS, Go FH, Kim CH. A study of oral hygiene status for pregnant women in some area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6;6(2):101-105
- Kim JY, Lee MO. A study on oral health state and oral health behaviors among some postpartum women in Busan. *Journal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2007;31(1):83-90
- Lee SO, Kang HK. Effect of pregnant women's oral health knowledge awareness and practice according to planned dental care experience before pregnanc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13(3B):1267-1277
- Lee SJ, Choi GY.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status and oral health awareness of pregnant wo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1):5049-5055
- Moreu G, Tellez L, Gonzalez-Jaranay M.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eriodontal disease and low-birth-weight preterm infants.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2005;32(6):622-627
- Park CS, Lee JY, Kim SJ, Lee KH, JU OJ. A study on the behavior status for oral health of pregnant women. *Journal Korean Academy Dental Hygiene Education* 2006;6(1):49-61
- Park MS, Kim JH. A study on awareness of dental treatment and oral health management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focusing on women of child-bearing ages and women of childbirth experience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2009;9(2):231-239
- Park YN, Shim CS.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the pregnant women about oral health care. *Journal Korean Academy Dental Hygiene Education* 2008;8(3):53-64
- Prichard JF.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2nd Edition). Saunders, 1972:742-743
- Shin KH, Kwon HJ. A survey on perception of some of university students's oral health care after dental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2010;12(4):315-326
- Sung MH, Ha MJ.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awareness of dental hygiene and practice of dental hygiene in pregnant wome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18(2):53-58
-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Oral care in gestational period, 2002
- Women's Nursing Health Subject Committee. Women's Health Nursing (7th Edition). Somoonsa, 2014:292
- Woo HS, Shim YS. Cor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visiting the dental clinic and oral symptom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4;14(3):259-268
- Xie Y, Xiong X, Elkind-Hirsch KE, Pridjian G, Maney P, Delarosa RL, Buekens P. Change of periodontal disease status during and after pregnancy. *Journal of Periodontology* 2013;84(6):725-731